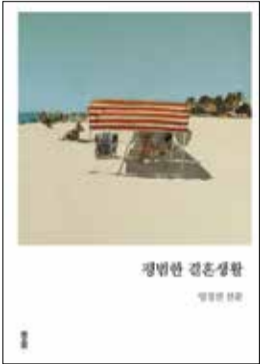


책 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생활

| 2021 3



임경선 작가의 <평범한 결혼 생활>은 제목이 선풍적인 마음에...

또한 한 남자와 25년을 살고 있는 터라 그녀의 책 속의 장 하나하나에서 혼자 실소를...

작가는 원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만난 지 3주 만에 청혼을 받고 3달 만에 결혼을 해서 20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녀는 책 첫머리에 결혼은 '나와 안 맞는 사람과 사는 일'이라고 했다. 생활 패턴, 식성, 취향, 습관, 더위와 추위에 대한 민감도, 여행 방식, 하물며 성적 기호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지?'를 연발하는 나날이었다.

주위를 보면 아주 오랫동안 연애를 하거나 동거하다가 결혼한 커플도 '결혼'을 하고 난 뒤 몇 년 만에 이혼하는 경우를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과 기대에 작용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주위에 추위나 취침 시간이 달라서 이미 남편과 각방을 쓰는 친구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녀는 또한 결혼 생활을 가급적 평화롭

게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초연해하며, 그것이 일으킬 갈등의 가능성을 피하려는 훈련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결혼 생활은 분명 일종의 인격 수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나는 격하게 공감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평생을 같은 지적을 하면서 한결같이 같은 주제로 싸움을 해오신 부모님을 둔 덕에 내 결혼 생활의 첫 번째 규칙이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고쳐 지지 않은 것은 절대 다시 얘기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지적은 두 번 세 번 듣지 않기 위해 고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 크게 싸우지 않은 25년을 보내왔다. 이를 통해 난 인격 수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남편도 나를 참아 내느라 인격 수양을 해야 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작가가 20년 전의 청첩장을 소개한 부분에서 난 박장대소를 했다.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해도...: 쳐 돌았나. 100번을 결혼해도 같은 남자라니. 100번을 흔들린 거라면 모를까..."

그녀가 말한 것처럼 10가지 단점을 가진 배우자라 할지라도 십 수년을 같이 살아오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강점 하나가 있기에 그 결혼이 유지된다는 얘기에 다시 한번 공감을 한다. '다른 남자랑 살아 보면 어떻게 하고 뼈죽거리다가도 어느 눈 내리던 스키장에서 길을 잃은 나를 찾아 데리러 와준 그때의 감동 하나, 길을 걸으면 잘 넘어지는 나를 꼭 잡고 다니는 따스한 그의 손이 그 모든 단점을 다 잊게 하는 것이 나의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 (shanghaibang.com)

허스토리 in 상하이

추억을 꺼내 주는 음식들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혼자 하는 여행도 좋아하고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도 좋다. 계획형이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나야 맘이 편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몇 달 전부터 여정을 짜고 갈 곳을 미리 검색해서 꼼꼼히 예약한다. 하지만 내가 여행계획에서 유일하게 미리 알아보지 않는 것은 식당이다. 물론 유명한 식당을 한 두 군데 미리 검색해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끼니는 그때 그곳에서 정하는 편이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카메라속에 담긴 음식 사진을 본다. 무심코 들어가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그 생소한 음식으로 인해 했던 수많은 대화들을 떠올려보면 꼭 맛이 있었던 음식이 아니어도 그때 그곳을 기억할 수 있고 내가 느낀 여행지에서의 감정과 생각을 떠오르게 해준다.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허기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났다면, 그것은 여행이 준 행운일 것이며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상하이에는 전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많다. 굳이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그 나라의 유명한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여행 중 먹었던 음식이 다시 먹고 싶을 때 웬만한 매력적인 도시이다. 얼마전 지인들과 함께 네팔음식점을 다녀왔다. 한국에서도, 상하이에서도 네팔음식점을 찾아가는 것은 처음이어서 가기 전부터 설레기도 하고 과연 음식점의 분위기는 어떨지, 음식은 어떤 맛일지, 주인은 중국사람일지 아니면 네팔사람

일지, 많은 것이 궁금해졌다. 어두컴컴한 분위기와 네팔의 종교적인 색채가 느껴지는 인테리어 때문인지 다소 생소하면서도 차분해지는 느낌이었다.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덕에 나무로 된 창틀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햇살이 나를 기분 좋게 했고, 동시에 새로운 음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듯 했다. 인도음식과 비슷한 마크니커리와 갈릭난, 탄두리 치킨, 그리고 네팔전통 음식인 달바트를 주문했다. 다양한 향신료와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맛보며 내가 이 식당에 오기전 왜 그리 설레었는지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2008년 1월,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혼자 배낭 하나 메고 한 달간 여행을 다녀왔었다. 지금 생각하면 여자 혼자 겁도 없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지 나조차도 의문이 들지만, 그때의 나홀로 배낭여행은 나에게 큰 경험이 되었고,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재산이 되었다. 그래서 인지 인도의 북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팔 역시 왠지 친근하고 반가운 이름이었다. 네팔과 가까운 인도의 '바라나시'에서 네팔에서 왔다는 대학생을 만나 바라나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팔에도 꼭 한번 여행을 오라고 권해줬던 그 친구가 떠올랐다. 여행의 끝자락에서 체력도 지치고, 집이 그리워질 때쯤 만난 그 친구 덕분에 한 달간의 인도 여행이 힘들고 동시에 즐거웠고, 또 새로운 나라, 네팔에 가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며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지만 여행 중 만난 인연은 짧지만 강렬한 추억으로 내 머리 속에 남겨졌다. 상하이에서 먹게 된 네팔음식 덕분에 15년전 나를 설레게 한 여행의 추억 한 자락이 떠올라 기분 좋은 하루였다.

(abigail98@naver.com)

Advertisement for DANURI DANCE (다누리댄스) at Danuri Cultural Center. Includes details about K-POP, HIP-HOP, JAZZ, Ballerina, and Yoga classe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

Advertisement for KAN EDUCATION 'KAN 여름특강 레벨테스트 진행중' (KAN Summer Special Level Test in Progress). Details include free application, subject-specific analysis, and a list of instructors like Jerome, Raf, and Sin.